

# 폭염 속 5강 싸움... 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 KIA, 체력 저하로 전력 비상 공정맨 김주형 불방망이 활약

프로야구 가을 판도를 바꿀 변수는 '정신력'이다.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글거리는 8월 더위는 프로야구 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낮에 경기가 진행되는 퓨처스리그에서는 폭염 취소와 폭염 콜드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늦은 오후에 시작되는 1군 경기도 폭염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더위에 훈련량을 줄이면서 체력관리에 들어갔지만 컨디션이 딱 떨어진 선수들로 전력 배치에 비상이 걸렸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 배분과 집중력이 더위만큼 치열한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로야구 최고참인 KIA 투수 최영필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을 강조한다.

최영필은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다. 어렵게 시즌을 끌고 오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은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력이 중요하다. 정신력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친 몸을 이겨내기 위한 '정신력'도 있지만 또 다른 '정신력'도 있다. 바로 승부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는 '정신력'이다.

공정의 생각으로 편견을 깨 가고 있는

KIA 내야수 김주형이 좋은 예다.

매년 부상과 부진으로 1·2군을 오르락 내리락하던 김주형은 올 시즌 1군 엔트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시작했던 김주형은 타격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수비요정'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경기 운영의 폭을 넓혀주었다. 최근에는 다시 뜨거운 방망이 실력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기록과 한계를 깨어가고 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마음'이다. '예비아빠'인 김주형은 가장이라는 책임감 속에 자신감으로 2016시즌에 도전하고 있다.

김주형은 "안 좋을 때 뭐라고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고 팀 분위기가 좋다. 마음 편하게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게 된다"며 "겨울에 웨이트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했다. 한 번도 2군에 안 내려가고 아프지 않고 하나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전의 계기가 된 지난 4일 한화전 대타 스리런에도 자신감이 있었다. 앞선 대타 상황에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던 김주형은 이날은 초구부터 상대 투수 권혁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김주형은 "대타로 나가면 모 아니면 도다. 좋은 타자도 세 번 나가면 두 번은 실패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며 "언제든, 어느 자리이든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좋았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3회초 1사 1.3루에서 8번타자 강한울의 내야방망 때 3루주자 김주형(왼쪽)이 득점을 올리고 덕아웃에서 김기태 감독의 격려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지난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광주FC 정조국(왼쪽에서 두번째)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광주FC 정조국, 통산 100골에 한 골 남았다

### 인천전서 동점골 1-1 무승부

### 14일 K리그 제주 원정경기

'무등산 패트리엇' 정조국(광주 FC)의 발끝이 통산 100골을 겨냥한다.

광주 FC가 14일 오후 7시 제주로 건너가 2016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상위 스플릿 격차 좁히기'를 목표로 내세운 광주에서는 정조국에 눈길이 쏠린다.

정조국은 지난 10일 안방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9분 김민혁의 패스를 받아 골을 기록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인천 김도혁에게 골을 내줬던

광주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순간이자 정조국의 시즌 15번째, 통산 99번째 골이 완성된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정조국은 웃지 못했다. 주현우가 무섭게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고, 파비오도 위협적인 중거리슈팅을 날리기도 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 1-1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조국은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준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5점차로 강등권인 11위에 머물고 있는 인천과의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였던 만큼 자신의 골보다는 팀의 무승부가 더 크게 느껴졌던 베테랑

정조국이었다.

정조국은 동점골을 넣은 뒤에는 부지런히 경기장을 뛰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정조국에게도 쉽지 않은 여름 일정이다. 그는 후반에는 부쩍 지친 모습도 보여줬다.

정조국은 "잘 쉬고 잘 먹고 회복이 중요하다. 팀 승리에 일조하는 것이 나의 목표고, 골이 나에게는 의무다"면서 제주전 승리를 다짐했다.

정조국이 이번 제주전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면 K리그 사상 통산 9번째 100득점 선수에 이름을 올린다. 또 자신과 팀의 시즌 최다골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면서 성남 티아고(13득점)를 따돌리고 득점

단독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게 된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도 정조국의 발이 중요하다. 광주는 현재 승점 29점(7승 8무 9패)으로 8위, 제주는 승점 34점(10승 4무 10패)으로 6위에 위치하고 있다. 11위 인천과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광주는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며 위를 올려보아야 한다.

광주는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홈에서의 첫 승부에서는 1-0으로 승리했고 지난 6월 제주 원정에서는 점전 끝에 2-3으로 쉽게 패했다.

7위 포항에 승점 1점차로 뒤져 있는 광주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바꾸고 상위 스플릿과의 격차를 한 경기 차로 좁힐 수 있다. 다음주 17일 예정된 3위 성남과의 주중 원정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제주전 승리가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악몽 같았던 리우, 마침표

### 박태환, 1500m 출전 포기

박태환(27·사진)이 자유형 1500m 출전을 포기하고 자신의 네 번째 올림픽 픽이었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를 일찌감치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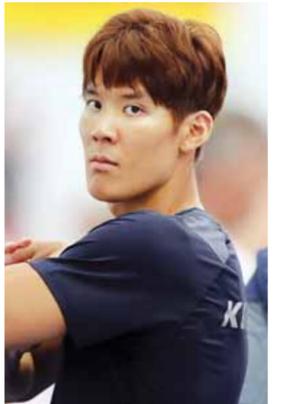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단 관계자는 지난 10일 "박태환이 코치진과 상의해 자유형 1500m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경기는 13일 오전 예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박태환은 앞서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와 200m에 이어 100m에서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남은 자유형 1500m는 출전을 고민해 왔다. 자유형 400m 예선에서 10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200m에서는 예선에서 29위라는 수모를 당한 채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자유형 100m에서는 49초24의 저조한 기록으로 공동 32위에 머물러 역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태환은 전날 자유형 100m 예선 경기를 마친 뒤 "1500m는 아예 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코치와 깊게 생각해봤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태환이 올림픽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딴 종목인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어이없이 무너진 뒤 그의 호주인 지도자인 던컨 토드는 남은 경기 출전에 불참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형 200m와 400m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온 데다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태환은 일단 자유형 100m는 뛰었다.

하지만 "100m는 200m와 400m 훈련을 하면서 같이 하던 거라 '해보자'고 할 수 있었지만 1500m는 훈련을 아예 못했고, 할 수도 없었다. 준비 안 된 상태로 레이스를 아예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안 될 것 같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불참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11일 귀국길에 오른 박태환은 13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